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1주(6월 30일~7월 2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50%였다. 5월 1주(71%)와 비교해 두 달 만에 지지율이 무려 21%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총선의 총 유권자 수가 4400만 명인데, 숫자로만 보면 무려 1100만 명 이상이 이탈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대북 관계 악화, 6·17 부동산 대책 실패,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격돌 등의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근원적인 요인은 총선 압승 이후 드러난 정부 여당의 ‘전제 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말 한마디

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행정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통령의 하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심사 5일 만에 처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압박해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도 절제되지 않는 권력이 몰고 온 기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주주의’(文主主義)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통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무감각해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한다.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온 규범과 관행이 하루아침에 현실택터럼 버려지고 있다. 제16대 국회(2004년)부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게 주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했다. 제13대(1988년) 국회부터 의석 비율대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

지던 협치의 전통마저 깨지고 여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하튼 민주화세력을 자부하는 정부 여당이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의 규범을 무시하면서 ‘일당 독재’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권력은 스스로 견제받아야 한다. 야당,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권력이 무차별적으로 견제받아야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가 몰락하면서 야당은 무기력해졌고, 일부 언론은 ‘진실 보도’를 외면한 채 정치적·정파적·이념적으로 이용되는 소재에만 치중하고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NGO)가 정치권력 비판의 칼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정치권 진입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권력화되고 있다.

양식 있는 지식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인을 자처하는 몰염치한 ‘여용 지식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물론 촛불 혁명 이후 시민들의 능동적·자발적 참여는 늘어나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코로나19의 재난 극복의

견인자 역할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팬데믹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일명 ‘문빠’로 불리는 열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영 내 어떠한 이견과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한국리사치는 ‘국정 방향 공감도’를 격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1주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4%였다.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32%)보다 12% 포인트나 많았다. 그러나 7월 1주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3% 대 44%로 역전되었다. 더구나 16개 정책별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보다 훨씬 낮았다. 주가·부동산 긍정 평가는 25%에 불과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 민심을 잡으려면 정부 여당에겐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권력을 제도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책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분명 겸손과 유능이 최상의 정책이다.

社 說

공직자들 코로나 방역 의식 이리 무뎌서야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가 전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남으로 전파시킨 매개자가 공무원으로 드러나면서 전남 도정을 비롯한 공공서가 한 때 폐쇄 조치되는 등 파장이 커졌다.

당국의 조사 결과 전남 30번 확진자(영암 금정면장)는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으로, 야간 수업을 받은 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4일간 골프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다. 특히 주말에 동료 공무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밀접 접촉을 했는데, 동반자들이 공직자들이다 보니 전남 도청과 영암군 등 공공서가 폐쇄되는 등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전남 도청은 30번 확진자와 라운딩을 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3개 부서를 그제 일시 폐쇄했다가 접촉자들이 음성으로 나오자 어제 정상 업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치단체 청사가 폐쇄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암군은 30번 확진자와 접촉한 면사무소 여직원

이 추가 확진을 받아 어제 군청과 금정면 등 면사무소 3곳, 경로당 3곳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보성군도 30번 확진자와 라운딩을 한 공무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군청 1개 부서와 회천면사무소를 오늘까지 이틀간 폐쇄하기로 했다.

공공서 폐쇄 조치는 업무 차질로 인한 행정 공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일반 상가 폐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 그것도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자로 공공서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자신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거리 두기 등 방역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체육계의 고질 폭언·폭행 광주에도 있었다

고(故) 최숙현 선수(철인 3종경기)를 버랑으로 내몰았던 체육계의 폭언·폭행 행태가 광주 지역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었그제 후배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전 광주시체육회 소속 우수 선수 A(27)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함께 생활하던 대학생 우수 선수 B(21)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발차기 못한다” “여자친구 소개해 주지 않는다” “술 마시는 것을 거절했다”며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단체에 폭행 사실을 알렸으나 이 단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A씨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출전정지 3회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 A씨와 또 다른 선배 C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B씨가 참다못해 경찰에 찾아갔다는 데목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절망감이 겹쳐진다. 최 선수는 생전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광주경찰서 등에 가혹 행위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어느 곳도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B씨 역시 최 선수와 마찬가지로 한술밥을 먹던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광주·전남 체육계는 고질적인 폭력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가혹 행위와 비인권적 행태를 대물림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아야 한다.

스포츠계의 폭력 문화와 이를 정당화해 온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자치단체와 시·도체육회는 체육계 전반에 걸쳐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검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며칠 전, 결혼 성수기도 아닌데 폭폭 짜는 이 한여름에, 때아닌 청첩장이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울분에 치르려 했던 아들의 결혼식을 미루다 이제야 치르게 됐으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까지 함께 전송돼 왔다. 청첩장과 문자를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부조금을 보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적혀 있지 않았다. 이번 주는 유독 코로나19가 극성이라, 솔직히 예식장 가기가 꺼려지던 차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보았지만 원하는 내용은 없었다.

온라인 부조

부조(扶助)는 ‘서로 돕는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다. 혼인이나 장례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친지와 이웃들이 직접 와서 일을 거들어 주거나, 돈 혹은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부조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록상으로 조선시대에 이미 일반화됐다고 한다. 애초 혼례나 장례는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서로서로 도왔으며 잔치에 쓸 곡물·술·기름 등 현물을 보내 주는 게 상례였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현물을 주던 부

조가 현금으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현금 부조는 조선 전기의 기록에 이미 보이긴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됐다. 이후 미풍양속이라는 관념이 강화 현대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는 부조의 범위가 물잔치나 환갑 등의 경사로까지 확대된다. 부조금은 크게 결혼·돌·환갑 등 경사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식 등 애사에 내는 조의금(부의금)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부조는 애초의 정성을 보탠다는 의미보다는 축의금을 품어들이는 경향이 짙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 몇 명이 예식장을 방문하는 바람에 방역 당국에 이상이 걸렸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줄은 알지만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부조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부조금은 현금하고 집안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채희종 사회부장chae@

종교칼럼

편견



황 성 호
신부·광주가톨릭사회복지회 부국장

편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오류투성이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편견으로 인해 사람을 미워했던 적이 있다. 사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미사 중 강론하고 있을 때 계속 눈에 들어오는 신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항상 찡그린 얼굴이었다. 강론의 내용이 깊이가 있어도, 재미있거나 슬퍼도 항상 찡그린 그 얼굴 그대로였다. 미사를 봉헌할 때, 복음 선포 후 강론을 할 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유심히 그 신자를 지켜보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똑같았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사무실

직원에게 그 신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신자로 인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개인적으로 사무장에게 말했다. 그런데 사무장으로부터 그 신자의 과거 사연을 듣는 순간,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에 미안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왜냐하면 그 신자는 10여 년 전, 큰 사고를 당해 얼굴까지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그는 수술과 오랜 재활을 통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웃어도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고, 슬퍼도 찡그린 얼굴이라고 했다.

어느 날 나는 그 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바라봤노라고 말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내 안의 편견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지를 직접 체험한 것이다.

스페인어로 편견은 ‘Prejuicio’라고 한다. 선입관, 예견, 억측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국어사전에서도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완전하지 못한 이해와 알아라고 할까, 반쪽짜리 판단, 절반의 이해와 알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편견은 인간관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견해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어떤 판단 등의 시작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에 의해서 정립되고 만들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느끼는 내적 지적 활동을 통해 정리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리된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정리된 대부분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지 모르겠다. 노숙인에 대해 “저렇게 몸이 성하면서 왜 일도 하지 않고 저리 사는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벼랑 끝에서 본 적이 있느냐?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한번 처해 봤느냐?”라는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미혼모를 향해 “나이라도 어린 것이 못돼 먹어 가지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편견의 시각으로 말하는 이들의 눈을 보며 “도망칠 수 없는 폭력에 억눌려 본 적이 있느냐? 상대의 폭력에 가슴이 찢어져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기도 한다. 정말 게을러서일까? 정말 못돼 먹어서일까? 혹시 편견으로 자기보다 못한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질문을 던져 본다.

결국 편견의 시작은 우월함이고, 편견의 결말은 폭력이다. 우월함은 감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감각은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감각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편한 한 것을 원한다. 감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감각은 익숙함을 좋아하고 불편함을 거부하기에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가톨릭 신앙에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영성을 통한 영적인 식별이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 그 영적인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겹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뵈으셨다. 예수는 제자들을, 또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간에 당신 자신 전체를 내어 주셨다. 이것이 편견을 없애는 답이 아닐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 편견을 차우고 우리 함께 이겨내 보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장 34절)

매달리는 것뿐이니 인간의 힘이 너무나 나약하게만 느껴진다. 과거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속에 떨게 한 것이 ‘세균’이었다. 지금은 ‘바이러스’인데, 아직은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에 의존하는 것은 단시일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화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는 ‘공동체’라는 민족 정신이 있다. 역사상 수많은 국난과 전쟁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며 ‘더불어, 함께, 서로’라는 말로 다양한 형태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 의식을 키워 왔다.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 유산은 역사, 예술, 학문적 측면에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가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공동체의 문화 가치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뭉쳐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심본 발휘해야 한다. 당면한 코로나 19의 치료와 예방 방법도 공동체 정신에서 찾았으면 한다.

기 고

코로나19와 ‘공동체’ 문화 가치



김 세 종
다산연구소 소장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 자연재해와 질병은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바람, 구름, 우레, 비와 같은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여 매년 음력 2월과 8월이면 제사를 지냈다. 바람을 관장하는 비림(飛廉), 구름을 관장하는 풍용(豐隆) 또는 운중군(雲中君), 우레를 관장하는 현원(軒轅), 비를 관장하는 평에(萍翳)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농사에 영향이 큰 기후를 관장하는 하늘 신으로, 비가 때맞추어 올랐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으로써, 곡식이 잘 되고, 먹거리가 풍성하면 다름없고 천하가 태평하다는 뜻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신의 몽니랄 수 있는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

하는 한 방편이자, 신에 대한 기원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의식을 베풀었다. 인간 사회의 두려움과 공포심의 대상은 무엇보다 질병이었다. 질병은 인간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전염력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가며 대형 인명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그 원인과 치료, 예방 역시 귀신 또는 악귀라고 하는 초자연신에게서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바로 질병을 관장하는 ‘년’(年)이란 악귀를 쫓고 달래는 의식이었다. 이 ‘년’은 땅 신으로, 몽니를 부리면 염병(장티푸스), 천연두(天然痘), 홍역, 수두 같은 강력한 전염병을 퍼트린다고 믿었다.

이러한 전염병은 인간 사회를 쓸대발으로 만들었는데, 전통 사회에서 수인성 전염병인 염병이나 천연두에 대한 신앙 의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천연두는 달리 손님·마마(媽媽)·포창(痘瘡)·호역(戶疫)·두창(痘瘡)·여역(癩疫) 등으로도 불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년’이란 악귀는 새해가 바뀌거나 귀빈의 행차가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에 주로 몽니를 부린다

고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궁중에서 한해를 보내는 음력 섣달 그믐날 나의(儺儀)를 베풀어 악귀를 쫓고 밝은 새해를 맞았으며, 민중들이 새해가 밝고 초이를 날부터 보름까지 마을 단위로 풍물을 어울러 집집마다 돌돌이를 하며 ‘지신밟기’를 한 풍속도 모두 ‘년’의 몽니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년’이란 악귀를 밟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에서다. 바로 이 ‘년’의 최대 무기인 전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식은 손님굿·별상거리·호구거리나 손굿·마마굿·마누라배송굿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의식화되어 지금도 중요시했다.

요즘 온 세계가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시름이 매우 깊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기존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염병이나 천연두 같은 세균성(박테리아) 전염병이 이제는 왕관 쓴 모양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뀌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에